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루계 제2190호]

주제 101
(2012). 9

22
토요일

음력 8. 7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6일 평양시민들과 함께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시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진행되게 될 5월 1일 경기장은 《1912》, 《2012》, 《100》이라는 글밭과 전광장치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와 영광찬란한 래일을 집대성한 《아리랑》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관 탈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올랐으며 온 경기장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토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배경대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천출명장 김정은장군만세!》, 《수령님과 장군님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 《원수님은 장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다》라는 글밭들이 련이어 새겨지고 경기장바닥에는 환희의 꽃물결, 춤바다가 펼쳐졌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일군들이 주석단관람석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반체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부

부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아리랑》의 선률이 장내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공연이 시작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걸출한 수령을 모시여 파란많은 수난의 민족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그 존엄을 최고의 경지에 울려세운 주체조선의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래일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식민지약소민족의 눈물의 아리랑이 태양민족의 선군아리랑, 강성부홍아리랑으로 승화된 주체조선의 력사를 훌륭히 형상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굳건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위용펼치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아리랑민족의 운명개척과 강성번영의 철리를 확증해주는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속에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배경대에 모셔지자 전체 관람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열광의 박수를 터쳐울렸다.

전체 관람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통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 사랑속에 우리 인민이 누리게 될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본보

기들이 솟아나 천지개벽을 노래하고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반영한 《아리랑》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거대한 립체적공간속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우아한 률동과 기백있는 체조, 풍만한 민족적정서와 세련된 예술적형상, 천변만화하는 배경대,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공연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 주체예술의 발전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 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고 평양의 밤하늘가에는 황홀하고 장쾌한 축포가 련이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새맛이나게 훌륭히 재형상하여 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출연자들과 창작가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입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

고려성균관 새교사 준공식 진행
개성시의 풍치수련한 강의실, 교실, 실험실, 강좌실, 문화후생시설 등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본교사 옆에 3개의 호동으로 되어있는 교사에는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종합

김영일 개성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교사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여야간의 《대선》 경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입장과 대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핵으로 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의해 오래동안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대결의 행기만이 감돌던 이 땅에는 통일열기가

감돌아 거테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민족분렬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고 끊어졌던 북과 남사이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정계, 사회계, 학계를 비롯한 북과 남의 광범한 계층들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었다.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남래왕과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세차게 급이친 것은 전적으로 북남공동선언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거테가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근본열쇠이며 기치이다.

그러나 애당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달가와하지 않

은 남조선의 리명박보수파 당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들을 그 무슨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뭐니 하며 헐뜯고 구도의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을 고집하면서 북남판

계를 대화도 협력도 교류도 없는 죄악의 사태에 몰아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화의 통일》을 공공연히 떠들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해 떨쳐나선 애국적

이며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을 기혹하게 탄압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반북대결만을 추구해온 리명박보수파당의 무분별한 대결책동으로 하여 오늘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더우기 남조선호전uang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해마다 벌

리고있는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축족발의 초기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하기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전면전쟁, 핵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려 광분하는 보수파당의 위험천만한 북침도발책동에 격분하여 회세의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최후경전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

현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성과적리행을 떠나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기대 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정세가 달라지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것은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신기복



통전리를 찾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은 새 세기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문화주체와 나란히 세월의 고사는 모습을 털어버리고 서 있는 리준렬사의 고향집인 우리 집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군 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생애에 차이 이름보다도 헤그밀사로 근대사에 새겨진 중조 할아버지 리준의 아들로 세상에 알려졌던 리용할아버지의 한생을 애국으로 빛내 주신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합니다. 저는 김정숙녀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 일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절세위인들의 고매한 응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1

리용할아버지가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를 처음 뵈온 곳은 차호였습니다.

오늘 차호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응정에 의하여 차호혁명사적지를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주제 96(2007)년 11월 두번 째로 차호혁명사적지를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감회깊은 말씀을 남기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전리에서 지하공작을 하실 때 이곳에 나오셨었습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시면 이곳에 깃든 어머님의 사적이 물혀 있을법 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차호에 김정숙동무가 1937년 여름에 활동하던 장소가 있을수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시여 이 사적지가 발굴되게 된것입니다. 참으로 수령님은 기억력이 비상하십니다!》

이 말씀을 새겨보느라 주제 78(1989)년 5월 중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고하시면서 하신 교시가 떠오릅니다.

《그때 김정숙동무를 비롯한 공직원들은 풍산지구를 거점으로 정하고… 리준의 아들 리용동무와도 연계를 가지고 그곳의 지하조직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도 여러 차례 회상해주신 할아버지의 한생에는 백두산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이 어려웠습니다. 1937년 7월, 장백현 도천리에서 지하정체 공작을 하고 계시던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국내의 혁명조직들과 애국자들을 끓어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은 즉시 풍산(당시), 리원을 거쳐 동해바다인 차호에 나오시였습니다.

붉은색 차돌총이 수십길절벽을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적벽강』이라고 불리운 차호앞바다는 당시 유홍터로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한 백두산녀장군

녀사께서는 신파지구 조직성원의 안내로 이곳에 이르러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할아버지에게 위장하기에는 이런 환경이 더 좋다고 하시면서 가지고 온 음식을 펼쳐놓으시며 친구들이 형식의 회합을 어ши었습니다.

녀사께서는 할아버지에게 헤그에서 분사한 아버지 리준렬사의 애국충정을 우리 겨레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성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백두밀립에서 여기 동해바다가에 찾아왔다고 하시였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이를 못할 격정의 소용돌이가 세차게 일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앉음새를 고쳐 무릎을 꿇고 너사께 목메인 소리로 말씀을 끊고 합니다.

『조선 국의 정통령이 신항일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떻게 저같이 이름없는 사람을 다 아시고 이 사지판에 친히 공작원을 파견해주시단 말입니까!』

감격에 넘친 할아버지 헤그에서 김정숙녀사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의 내용과 그 창립선언을 헤설해주시고 각계총의 반일에 국력을 조국광복회 두리에 결속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시였습니다.

녀사께서는 차호반일회 사업을 해주시고 각이한 계층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성원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능란하게 사업할데 대하여, 모든 학생과 청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출기차게 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김정숙녀사 앞에서 이제는 됐다고, 김일성장군님의 수하군사가 되어 일편단심을 바쳐갈 맹세를 장군님께 전해드려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 50년이에 이른 그는 없이 흘러보낸 지난날을 둘어켜보며 새로운 원기 솟구쳐오름을 느끼였던 것입니다.

김정숙녀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그날은 할아버지에게 한생의 새 리정표를 새겨준 듯 깊은 하루였습니다. 백두산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잡자던 냉을 깨우고 애국의 힘을 끊어버리게 해준 날이였습니다.

젊어서 유교를 공부하고 북청에 경학원을 설립한 중조 할아버지 리준은 종교인이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보적인 개

혁주의자였습니다. 서울 정동의 법관 양성소를 1기로 졸업하고 일본 경전문학교 법률학과(후에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마친 그는 평리원검사로 활동할 때 국제법에 관심이 깊다고 합니다. 그는 망국적인 『울사 5조약』의 날조로 『시일야방성대곡』이 터져나온 리조말기의 1907년에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종황제의 밀서를 품고 네덜란드의 헤그로 갔습니다. 『울사 5조약』의 비법적인 날조와 일제의 침략책동을 폭로 규탄하고 국제적여론을 환기시켜 민족적독립을 회복하려고 온갖 가능성을 다리용하여 활동하던 그는 일제와 그와 결탁한 제국주의의 렬강의 고책동에 배를 끌고 죽음으로 항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라의 독립은 그 어떤 렬강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위대한 영수를 모셔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남기였습니다.

리준렬사의 3대외독자가 바로 리용할아버지였습니다. 북청에서 데어나 서울보성전문학교를 다니던 할아버지는 이어지자 자신의 자결을 품고 헤그로 갔습니다. 『금란지계전』이 뜻깊은 편지를 정중히 받아안은 그는 북청사람들이 만든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유지들을 앞에 내세우고 『금란지계전』을 무었습니다. 『금란지계전』에는 『…정통령은 우리들의 김일성회장, 김대장은 민족의 영재, 하늘의 태양 복되도다…』라는 뜻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100주자의 한시형식에 담은 『대강백자령』과 『김대장을 따라 나서라』, 『녀성투사 흠토모가』도 지어 널리 불렀습니다. 오늘 북청군의 대대산파 마산리, 청홍리와 통천리 등 여러 곳에서 발굴된 『김일성회장 만세』, 『백두산녀장수 따라 나서라 1937』, 『여기에서 당시 『엄녀결』(녀사께서 당시 엄우순이라는 이름을 쓰시였음.)과 『청송한 구호문현들은 당시 령도자를 따르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렬하였는가를 실증해주세요.』

아버지는 만리타향에 한많은 선혈을 뿐렸다면 나는 파연 어디에에 국의 더운 퍼를 바칠것인가, 에국의 참될 넋을 지니지 못한 리용할아버지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1931년 항일의 전설적영웅

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동안으로 갔다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감옥생활

도 하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전생은 그야말로 과란만장한 우리 나라 근대사의 축도와

도 같았습니다. 석방후에 고향에서 『두문별』을 받고 있던 그는 일정들과 경찰들의 항시적인 감시와 미행속에서도 투쟁을 벌려 차호반일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미군의 남조선강점소식에 접한 할아버지는 을사선의 치욕으로 40여년간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한 우리 민족이 이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새 조국을 세울수 있게

주신것이였습니다.

그후 또다시 국내에 나오신 김정숙녀사께서는 할아버지에게 찾아주시고 그가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고있는것은 매우 장한 일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며 고무해주셨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여러 차례 받아안은 할아버지는 더 분발하여 일제의 폭압속에서 험한 국지법에 걸리고 있는 것은 매우 장한 일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막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8° 선을 넘었습니다.

남조선땅에는 해방의 기쁨이 번개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지럽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합사상의 깊은 뜻을 알려주며 나라의 분열을 반대하는 스스로 투쟁에 불려일으키던 할아버지는 38° 선이 막히자 서울에서 진보적인 세력들로 신진당을 끊고 그 당수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애국적량심을 믿으시고 남북련석회의에 불리주시는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인장이 찍힌 뜻깊은 편지를 정중히 받아안은 그는 드디어 38° 선을 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여러 곳을 돌아본 감상은 어떠한가, 가족들은 잘 있는가하고 다정히 물어주시었습니다.

김정숙녀사께서 북청지구에 여려 차례 나가시여 할아버지지를 만나시던 나날들을 감회깊게 추억하시였습니다. 너사께서 10여년 전 갈길 몰라 방황하던 자신을

애국의 불을 끌어주시던 그가

자기지가의 일들이 한꺼번에 펼쳐

그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끝없는 감동에 휩싸인 할아버지는 이제부터 장군님의 슬하에 떠나지 않고 새 조선 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드렸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되던 혁사의 날에 리용할아버지를 도시경영상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첫 내각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었습니다. 앞줄에 앉으신 수령님께서는 잠시 뒤를 살피시다가 그에게 왜 뒤에 가있는가하고 하시며 황송하여 몸돌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나이많으신분이 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친히 자리까지 잡아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할아버

지가 사법상, 무임소상 등의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관심하시

었습니다. 그가 자주 앓는다는 것을 해로 하신 수령님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잘 돌보면서 일하라고, 오래오래 살면서 조국통일의 날을 보아야 한다고, 해방전이나 이후나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온 리용선생이 통일이 되기 전에 앓아눕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치료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저택 문가에서 친히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항일의 날에 성명용 김정숙녀사를 뵈울 때까지 푹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하시며 여러 차례 귀한 보약도 보내주시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1954년 8월, 66살에 불치의 병

으로 림종을 앞둔 할아버지는 자

끌어준 그녀성정치공작원이 바로 항일의 너장군이신 김정숙녀사 이시리나?!

할아버지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몸가까이에서 뜯겨 받아안았는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견제주고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신 생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소리없이 줄줄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수난의 세월 푸질많은 운명으로 부모가 비명한 후 홀로 불우한 인생의 진창길을 헤맬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결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쌓인 울분은 구천에 사무쳐 세상을 다 떠돌아다녔어도 디씨온 모발과 원한뿐이던 재무지가 된 할아버지의 미소에 뜨거운 인정의 세계를 안겨주고 애국의 불을 지펴 생의 환희를 주신분은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녀사이시였습니다. 혁사의 그날 처음으로 백두산녀장군을 만나뵈었던 동해마다를 추억하는듯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어리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도 근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민족앞에 공헌한 애국자들을 내세워주시는 백두산위인들의 응정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여러 곳을 돌아본 감상은 어떠한가, 가족들은 잘 있는가하고 다정히 물어주시였습니다.

김정숙녀사께서 북청지구에 여려 차례 나가시여 할아버지지를 만나시던 나날들을 감회깊게 추억하시였습니다. 너사께서 10여년 전 갈길 몰라 방황하던 자신을

애국의 불을 끌어주시던 그가

자기지가의 일들이 한꺼번에 펼쳐

그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끝없는 감동에 휩싸인 할아버지는 이제부터 장군님의 슬하에 떠나지 않고 새 조선 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드렸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되던 혁사의 날에 리용할아버지를 도시경영상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할아버지의 유해를 안치하도록 하시고 첫 조국통일상수상자의 한 사람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주제 73(1984)년 4월 종순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항일혁명투쟁시기인 73년 4월 15일에 공헌한 혁명연극 『월분만국회』가 다시 무대에 오른 것을 보아주시는 감회깊은 자리에서 헌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애국열사릉에 할아버지의 유해를 안치하도록 하시고 첫 조국통일상수상자의 한 사람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주제 91(2002)년 6월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북청군 청홍리 송전사적지를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조직성원들이 남긴 구호나무들로 몸소 돌아보시고 은정깊은 가르침을 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려로 할아버지의 서거 50돐이 되는 주제 93(2004)년 8월에는 우리 후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모모임이 국립사릉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들은 5대를 이어오는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응정을 길이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굳혔습니다.

리일

2

리용할아버지가 일구월십 바라던 조선해방의 날은 드디어 왔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온나라는 감각에 뜰었습니다. 그는 북청

지역에서 김일성장군원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정권기관을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미군의 남조선강점소식에 접한 할아버지는 을사선의 치욕으로 40여년간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한 우리

민족이 이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새 조국을 세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수한 조선옷 차림에 환한

미소로 다정히 맞아주시는

김정숙녀사. 그때 차호기슭에서

자신을 옮기바른 투쟁의 길로 이

었습니다.

80고개가 넘은 로인이라 하기

에는 뼈 정정했다. 훨씬 철한 체구

에 시원하게 생긴 동글한 얼굴이

며 다심하고 부드러운 인정미가

짙어보이는 눈매. 서글서글한 성

격이 드러나는 입가에서 노상 웃

전쟁을 돌아오는 외세와의 공조

최근 리명박 보수당이 미 일상인들과 공모를 했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대답하고 있다.

그들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미싸일 위협설》을 내 돌리면서 미국과의 《미싸일 협정》 개정 협상을 벌리는데는 하면 오는 26일에는 남조선에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PSI 해상 차단훈련》이란 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내외의 거듭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호전 패들이 강행하고 있는 미싸일 사거리 연장 시도와 각종 군사연습들은 평화의 악랄한 파괴자, 전쟁광신자인 리명박 보수집권 세력의 반민족적 정체를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면서 동족대결을 합리화하고 북남

얼마전 서울에서는 남조선당국과 미국 사이에 제2차 《통합국방협의체》 본회의는 되었다.

여기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이른바 《북핵 위협 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화장역제 수단 유통 연습》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완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한 공동훈련과 전문가 양성으로 빠르게 협력방안을 실행할 협의체를 가까운 시일 안에 가동하기로 하였다.

전쟁의 문어구에 들어서 있는 정세 속에서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북침전쟁 모의를 벌려놓은 것은 그저 스쳐지 날수 없다.

지난 4월에도 남조선군부는 미국에서 상전과 제1차 남조선 미 국 《통합국방협의체》 본회의는 벌려놓고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 위협》을 우려하며 그에 대처하여 《긴밀하게 공조하고 강력히 대처》 해줄 것을 미국에 구걸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 호전당국과 함께 그 누구의

관계를 완전파국으로 몰아간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하나의 페리를 이으며 살아온 단일 민족이다. 조국통일은 한페

줄을 이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이를 해야 할 민족사적제례이다. 외세는 오래전부터 조선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장애만을 조성하였다. 그러한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족의 단합된 힘만이 대결과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안아올 수 있다. 민족의 미래는 외세의 존, 외세 풍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에 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해 주어야 한다.

사대국에 환장하고 외세의 존이 체질화된 보수당국의 반민족적 책동으로 하여

6.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

는 형편이다.

남조선호전당국은 이 작전계획에 따라 공화국의 지하군사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 《벙커 버스터》를 실전배치하기로 하였다.

실지로 미국과 남조선호전당국은 지난 8월에 있은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학동군사연습에서 공화국을 선제공격하는 훈련과 함께 이른바 《자유의 바람》으로 명

남관계는 과국에 치하고 조선반도 세는 일축족발의 전쟁점경으로 치닫게 되었다.

남조선호전 패들은 외세와 암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혁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전쟁주범이다.

동족대결은 국도로 적대시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전쟁으로 《체제통일》 암망을 실현하려 하는 것은 리명박당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동족에 대한 《주적론》을 제작해온 이들은 《천안》 호사건과 《평양도사건》을 모독하고 외세와의 핵공조, 전쟁공조, 《인권》 공조로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한 것이 다른 아닙니다. 리명박당이다.

사대국에 환장하고 외세의 존이 체질화된 보수당국의 반민족적 책동으로 하여

6.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

는 형편이다.

남조선호전당국은 이 작전계획에 따라 공화국의 지하군사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 《벙커 버스터》를 실전배치

하여 2000km로 늘리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또다시 북침을 위

북을 자극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조선군부 호전 패들의 전쟁광기는 집권 말기에 이르러 국도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호전 패들은 외세와 암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혁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전쟁주범이다.

동족대결은 국도로 적대시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전쟁으로 《체제통일》 암망을 실현하려 하는 것은 리명박당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동족에 대한 《주적론》을 제작해온 이들은 《천안》 호사건과 《평양도사건》을 모독하고 외세와의 핵공조, 전쟁공조, 《인권》 공조로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한 것이 다른 아닙니다. 리명박당이다.

사대국에 환장하고 외세의 존이 체질화된 보수당국의 반민족적 책동으로 하여

6.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

는 형편이다.

남조선호전당국은 이 작전계획에 따라 공화국의 지하군사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 《벙커 버스터》를 실전배치

하여 2000km로 늘리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또다시 북침을 위

남조선당국이 24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울과 부산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운영 전문가 그룹(OEG) 회의와 해상 차단훈련을 벌리려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 전문가 그룹 회의는 24일부터 이를 간 진행되며 이 회의가 남조선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26일부터 벌어지는 해상 차단훈련에는 남조선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해상초계기, 해상경찰의 선박승선 특공대를 포함하여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전투함 선들과 비행기까지 동원될 것이다.

북남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정세 속에서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벌려놓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폭로된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라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전파를 막는다는 구실 밀ie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모해하고 압살하기 위해 만들어낸 범죄적인 기구이다.

외세 공조로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리명박당에 대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미국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대량살상무기》를 《전파》하는 《위험 국가》로 몰고 그 무슨 《확산방지》라는 미명 하에 국제적인 포위환까지 형성하여 반공화국 암살 목표를 기어이 이루어 보이고 있다.

그 침략성과 불법성, 조선반도 정세에 미치게 될 엄중한 파국적 후파로 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시종일관 온 겨레와 세계 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 같은 규탄 배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족대결과 사대국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가를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하거나의 기회로 여기고 2009년에 여기에서 가담해 나섰으며 그 후 함선 침몰 사건을 구실로 사상처음으로 남조선 주변 해역에서 이 훈련을 거

리점 없이 감행하는 당동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벌리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이 추구하는 것은 공화국의 선박들에 대한 강제억류, 검문, 검색을 통한 해상봉쇄이다.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반도에서 해상수송이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남조선호전당국이 이 훈련을 감행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더욱 명백하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외세가 조작해낸 침략도구를 이용하여 공화국의 평화적인 경제 발전을 가로막아 질식시키고 저들의 북침 암말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대외수송 단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화물들을 뒤지는 것은 엄연한 국제 법위반이며 그 한 행동은 해당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을 남조선당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감행하려는 것은 북침전쟁책동을 공해상으로까지 확대하고 다국적 무력에 의거하여 기어이 북침을 실현하자는 데도 그 진의가 있다.

해상봉쇄는 전시에나 있을 수 있는 행위로서 사실상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과 같이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비법의 날강도적인 적대 행위가 가져올 것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뿐이다.

공화국은 이미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에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남조선호전당국이 공화국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도발적인 훈련을 강행해나선다면 그로 인한 후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야 소용이 없다.

송철민

자멸적인 북침전제공격음모

명된 《대북안정화작전》이라는 것을 진행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통해 서도 리명박 《정권》이 공화국의 책, 미싸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세운 사실도 폭로되었었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싸이버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싸이버전쟁 관련 연구개발을 착진임무로 하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싸이버 공간에

하기 위한 싸이버 공격 훈련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외세와 암합하여 《싸이버스톰》 학동군사연습에 참가할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번 모의판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싸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협의체를 내오려 하였다.

복 받은 가정들

《야, 창전거리가 참 멋있지요?》, 《저런 회한한 살림집들에선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요즘 빠스를 타도, 길을 거닐어도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는 것은 창전거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1년 전 평양시의 중심부인 만수대지구에 새 거리를 일떠세운다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새집들이를 하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오늘까지도 창전거리는 여전히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주목을 끄는 대상으로 되고 있다.

얼마 전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전거리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아주신 소식은 또



창전거리 종로동 1반 1현관 3층 2호 박승일가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전 64돐에 즈음하여 중국 상해시, 로

씨야 울리지보스포크시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화현들을 해당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중국, 로씨야에서 진행

이 전람회장들에 모셔져 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찬란한 역사

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개막식들에는 해당

집들이였다.

그이께서 찾아주신 집들만이 아니다.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에서는 이들과 꽃같은 평범한 지식인들, 로동자들이 살고 있다.

창전거리를 돌아본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이문을 표시하고 있다.

- 평양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고급가구까지 그려낸 갖추어진 3, 4, 5칸짜리 집들에서 어떻게 로동자들이 살수 있는가?

- 로동자라고 해도 특권층과 인연이 있는 로동자가 아닌가?

하기는 그럴만도 하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상상도 할수 없으니까.

창전거리 종로동 1반 1현관 3층 2호 세대주인 박승일은 중구역도시미화사업소에서 로동자로, 안해는 경상체신분소에서 출판물보급원으로 일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2층 1호에서 살고 있는 문강순녀성의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고아였고 평범한 직포공에 불과한 그를 선군시대의 공로자로,

로령영웅으로 내세워주었고 신혼술집을 하는 그에게 덩실한 새집을 주었다.

2009년 만수대거리가 한창 일떠서고 있을 때 외국의 한 언론은 거리건설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이런 경치 좋은 곳의 교육아빠들을에는 아마 국가의 간부들과 사회의 《엘리트층》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제나름의 억측을 내돌린 바 있다.

그러나 그 억측은 정반대로 3년 전 만수대거리에는 평범한 로동자, 지식인들이 입사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수복: 그렇다. 나는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오늘 이르는 근 60년 세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페부로 느껴왔다.

기자: 교장 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을 새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사랑을 다 둘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제일 먼저 학교를 복구하도록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배움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공화국에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는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처음에는 좀 힘들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모범교원이 될수 있다고 고무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

아버지수령님의 그날의 사랑과 믿음, 가르치심대로 학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칠 굳은 결심을 안고 나는 학생들을 최우등생, 모범학생으로 키우기 위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학생 교육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

행하였다.

김수복: 내가 교단에 선 때는 18살 꽃나이처녀시절이었다. 교단에 선지 한달밖에 안되었던 때에 나는 우리 학교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 날 나를 단발머리 선생님이라고 정겹게 불러주시며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처음에는 좀 힘들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모범교원이 될수 있다고 고무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

아버지수령님의 그날의 사랑과 믿음, 가르치심대로 학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칠 굳은 결심을 안고 나는 학생들을 최우등생, 모범학생으로 키우기 위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학생 교육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

행하였다.

기자: 교장으로서의 체모를 조금이나마 갖출수 있게 되었고 내가 맡은 학생들을 모두 최우등생으로 지도해주시였다.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나가겠다

평양 창전 소학교 교장

기자: 나라가 해방된 첫 날부터 후대교육교양문제를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후대들을 빠짐없이 다 돌아보신 다음 우리 교원들과 책상을 마주하시고 전반적 11제의 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을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키우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어린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기자: 교장 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을 새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사랑을 다 둘려주시였다.

김수복: 그렇다. 나는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오늘 이르는 근 60년 세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페부로 느껴왔다.

기자: 교장 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을 새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사랑을 다 둘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제일 먼저 학교를 복구하도록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배움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도록 해주시였다. 그 사랑속에 우리 학교도 포연을 가지고 번듯하게 자기의 세 모습을 드리었으며 해빛밝은 교정에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향기롭게 울려 퍼지게 되었다.

우리 학교가 북구된 지 1년도 되나마 한 주체 43(1954)년 9월 22일 몸소 우리 학교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아주시고 학생들이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자라면 교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이르시였다.

전반적 11제의 무교육이 실시되는 뜻깊은 날에도 몸소 우리 학교를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을 축복해주시고 교원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김수복과 나눈 대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가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크게 평가해주시며 나의 교수방법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도 안겨주시였고 국가로써 영웅으로, 인민교원으로 어엿하게 성장할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보살펴심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정 전직후 단발머리처녀로 교단에 나섰던 내가 한 개 학교를 책임진 교장, 2종로역 영웅으로, 인민교원으로 어엿하게 성장할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보살펴심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기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속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이 학교에도 미치지 않았는가.

김수복: 정말 꿈만 같다. 지난 5월 말 몸소 우리 학교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가 지난 58년간을 이 학교의 교원, 교장으로 사업하고 있다 보고를 받았으나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 있는데 대해 파분한 평가를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곧 학교문을 열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고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꼭 보시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였다.

진정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력사를 길이 빛내여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어 이땅의 새 세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내나이 비록 일흔이 훨씬 넘었지만 절세위인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가슴속에 좌우명으로 새겨안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힘을 다 바친으로써 갈수록 더해만 가는 이대한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해나가겠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길이 전해진 시계표창도 안겨주시고 내가 60살을 맞는 그날에는 몸소 사랑의 생일상도 차려주시였으며 이 가슴

서해기슭에 아득히

펼쳐진 차나무숲

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된 대에 차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차나무의 약효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수천년 전부터 인생활과 멘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는 차는 동백경화, 고혈압, 뇌혈전 막고 심장기능을 높여주며 장을 보호하고 방사성피해를 줄이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 4대장수식품의 하나로 되고 있다.

차는 그 신비한 효능으로 하여 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세계 3대기초음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차는 북위 36°선이 북지역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공인되어 있어 그 진귀함이 더해지고 있다.

그런데 공화국에서는 차나무를 북위 37°~38°선에서 완전히 풍토순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과학을 놀라운 것이다. 온대, 아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남방산식물인 차나무는 겨울나기온이 최고 -15°C~-16°C이다.

세계적으로 차의 주요생산지를 보면 중국, 일본, 인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의 기후가 온화한 지역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조선의 지리산일대에서 차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하나 강령지역은 겨울에 -20°C이하로 내려갈 때 가드문하다. 말하자면 차재배

지역과 가을에서 제일 추운 대에 차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곳에서 차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근 30년 세월이 흘렀다. 끓여지으면 죽는다는 차례우기 힘든 차나무를 추위견딜성이 강한 품종으로 풍토순화시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은정은 대를 이어 전해지리라»

지구상의 차재배지역과 차나무가 어떻게 되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잎새를 펼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가슴후려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여년 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나무를 지켜 나누어 주시었던 차나무 200여 그루와 몸소 저택에서 가꾸시다가 보내주신 차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차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안될수 없다고 하여 차생산을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었다.

그때를 감히 깊이 회고하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차를 마시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1980년대에 다른 나라에서 선물로 보내온 차나무를 몸소 저택에

부터 10여년 동안 일해온 송춘선녀성은 말하였다.

강령차는 공해가 없는 비옥한 토양에서 유기질비료로 차례운 차나무의 잎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맛과 약효가 다른 나라의 토착보다 우월하다. 차의 원산지이며 차문화가 제일 오래다는 중국사람들도 강령특차의 맛을 보고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든다.

«은정은 대를 이어 전해지리라»

에서 심으시고 풍토순화시켜 펼치도록 하시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듯 강령은정차재배원에는 수십년 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차나무 200여 그루와 몸소 저택에서 가꾸시다가 보내주신 차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나무들을 황해남도 강령군과 강원도 고성군에 심도록 시험차재배지를 몸소 잡아주고 강력한 기술집단을 꾸려주시었으며 풍토순화와 재배기술확립을 위한 연구사업의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차나무에 꽂이 끼고 눈서리를 이겨냈다는 짤막한 차나무재배소식이 사가 실린 신문을 보시고도 못

교상의 중요한 뼈물의 하나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평백성들은 마시기 어려웠다. 양반통치파들은 차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조차 차맛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깡그리 수탈해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려시기의 시인이었던 리규보는 자기의 시에서 일천가지 차잎으로 만든 한모금의 차물은 만백성의 기름과 살이라고 개탄하면서 그대가 만일 벼슬자리를 더욱 활성화해나가도록 차나무재배가 성공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수령님의 인민적사랑이 길이 전해지도록 친히 «은정차»로 명명해주시었다. 하루빨리 인민들이 차를 마시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강령방에 차를 전문재배하는 농장인 응정차재배원을 내오고 발면적을 더욱 확장하도록 하시였으며 평양시에는 응정차를 봉사하는 시설도 내도록 하신것 등 그의 어민현신의로고는 끝이 없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인 교수, 박사 조희승은 우리 나라에서 차재배력을 보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있으며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전설을 대를 이어 전해가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차나무숲을 보면서, 응정차를 마시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있으며 인민사랑의 감동



새로 생겨난 통라인민유원지에서 울리는 인민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에 열기띤 응원소리가 더해져 풍차수레한 통라도를 들었다놓았다.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10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온 나라 인민들의

민족의 흥취 넘치는 통라도 씨름경기장

제 10 차 대 황 소 상 전 국 민 족 씨 름 경 기 진 행

커다란 판심과 기대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흥미진진하게 벌어진 단체전경기

씨름경기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민족경기로서 인내력과 뿐만 아니라 청수함을 키우는 좋은 유풍경기이다. 우리의 민속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 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정 속에 세상에 보기 드문 대황소를 놓고 떠들썩하게 씨름경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번째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는 각 도별 단체전경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에는 단체전경기가 지난 시기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여 더 큰 관심을 모았다.

단체전경기는 몸무게급에 관계없이 매 단체에서 5명씩 출전하여 조별련맹전을 한 다음 매 조에서 1, 2등을 한 단체들이 승자전을 벌려 최종순위를 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한창나이의 젊은 선수들만 참가하여 승부를 다투었

지만 이번에는 단체전에 나서는 매 팀에 15살아래의 소년과 60살이상의 노인이 각각 한명씩 참가하였다. 여기서 《애기씨름》으로 불리우는 소년들의 경기를 맨먼저 하고 3명의 성인급경기를 한 다음 노인들의 경기는 마지막에 진행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았다.

경기첫날부터 치열하게 진행된 단체전 최종결승단계에서는 조별련맹전과 승자전에서 맞다른 팀들을 모두 물리친 평양시단체와 평안북도단체가 올라왔다.

만만치 않은 두 단체간 사이의 대항, 관중들의 열기띤 응원속에 아슬아슬하게 벌어진 결승경기에서는 평안

북도단체가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단체전경기에 이어 비교씨름경기가 진행되었다.

4 련 승 한 리조원

제 10 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씨름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뛰어난 해도 비교씨름경기였다. 나이와 몸무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하여 승부를 다투는 비교씨름경기는 오래전부터 모두의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경기 종목이었다.

이번 비교씨름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상으로 주게

리 알려진 선수였기 때문이었다. 186cm의 키와 99.6kg의 몸무게를 가진 그가 4년승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누구나 입을 모았다.

리조원선수 둘지 않게 물망에 오른 선수는 평양시의 박광철선수였다. 지난해 리조원선수와의 경승경기 첫 회전에서 이기었지만 나머지 두회전에서 패하여 판관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었던 박광철선수가 이번 민족씨름경기에서 최강자의 자위에 도전할 것은 불보듯 명백한 것이었다.

9월 17일, 비교씨름경기가 진행되는 통라도 씨름경

기장은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씨름전문가들과 애호가들, 수많은 관중들로 흥성거렸다.

사람들의 열기띤 응원속에 진행된 비교씨름경기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2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에게도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1등을 한 리조원선수가 금메달을 들고 대황소를 물고 경기장을 한바퀴 돌자 관중들이 환호를 울리며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올해까지 4연승을 기록한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리조원선수는 『단순히 나의 힘과 기술이 좋아 1등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각도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보폭을 맞추는 심정으로 훈련에서 수많은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두 씨름장간의 경기를 주시하였다.

기다리던 결승경기가 시작되자 만만치 않은 두 선수는 공격기회를 노리며 악물어 링글링을 돌아갔다. 긴 강감이 흐르는 속에 평안북도의 리조원선수가 먼저 수포를 쐈다. 배지기수법이었다. 완강하게 방어하던 박광철선수가 살바를 놓친 순간 리조원선수는 술돌림틀을 주지 않고 련속공격을 들이댔다. 드디

여 박광철선수의 어깨가 땅에 닿았다. 동시에 터져 나오는 열광적인 환호와 아쉬움의 목소리... 치열하게 진행된 2회전경기에서도 리조원선수가 이겨 영예의 1등을 하였다. 2등과 3등은 평양시의 박광철, 남평왕선수들이 하였다.

이어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1등을 한 평안북도의 리조원선수에게 1t이나 되는 대황소와 금소방울, 상장이 수여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에게도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1등을 한 리조원선수가 금소방울을 들고 대황소를 물고 경기장을 한바퀴 돌자 관중들이 환호를 울리며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올해까지 4연승을 기록한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리조원선수는 『단순히 나의 힘과 기술이 좋아 1등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각도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보폭을 맞추는 심정으로 훈련에서 수많은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두 씨름장간의 경기를 주시하였다.

기다리던 결승경기가 시작되자 만만치 않은 두 선수는 공격기회를 노리며 악물어 링글링을 돌아갔다. 긴 강감이 흐르는 속에 평안북도의 리조원선수가 먼저 수포를 쐈다. 배지기수법이었다. 완강하게 방어하던 박광철선수가 살바를 놓친 순간 리조원선수는 술돌림틀을 주지 않고 련속공격을 들이댔다. 드디



역사
상식

민족의 슬기가 깃든 조선활

활은 단군조선때부터 유명하였다. 세나라시기의 활은 《뿔각》에 《활궁》을 써서 《각궁》으로 이름을 불었다. 고구려의 활은 고구려 사람들을 막아내고 부르는데로부터 《백궁》이라고도 불렀다. 이때 우리 민족은 견고하고 멀리 가는 활을 만들기 위해 물소뿔과 소힘줄을 이용하는데 활 하나를 만드는데 소 3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우리의 활은 화살과 활촉도 특이하였다. 화살재료로는 함경북도지방의 광대짜리나무를 이용하였는데 그 것은 쇠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활촉은 백두산의 청석을 재료로 하였으며 여기에 식물의 독이 가장 강한 7~8월에 식물에서 채취한 독성분을 발랐다.

우리 민족의 슬기가 깃든 활은 다른 나라들의 활에 비해 사거리가 먼것이 특징이었다. 우리의 활은 또한 화살을 날릴 때 속에 전달되는 충격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은 날아가는 화살이 충격을 미칠 때마다 끊어지거나 키우기로 수수한 일에 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했네. 자네를 낳아 철들도록 다 키워준 어머니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뭘 주자 하겠나. 가보게. 가보면 자네가 떠난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던가를 세 살 아래에서 그처럼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그때 공목사가 찾아왔다.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 반파코인주화투쟁의 앞장에서 싸우다 해외로 망명한 공목사는 가족친지를 다 남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로서 한푼의 돈이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영백의 일에 그처럼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영백은 어머님께 기다리고 있는데 뭘 주자 하겠나. 가보게. 가보면 자네가 떠난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던가를 세 살 아래에서 그처럼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어머니! 제가 지금 좀

을 전부 흡수하기 때문이었다.

한때 우리의 활에 현혹된 이웃나라에서는 구진천이라는 사람을 청하여 《천보노》(천보나가는 활)를 만들 것을 강요하였다. 《천보노》라는 유명한 활을 바로 구진천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본사기자

어놓고 마침내 퇴각하게 만든 혁사적 사실을 보면 그만큼 우리 민족이 조국방위에서 활을 잘 쏘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활이 이처럼 이름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높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겨졌기 때문이었다.

본사기자

사파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대표적인 곡물의 하나이다. 사파는 『하루에 사파 한알씩 만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 가을과의 『왕』으로 불리운다.

『동의 보감』

에 사파는 고려약재이름으로 능금이라 부르는데 맛이 시고 달며 성질이 따뜻하고 긍정성장으로 인한 배아픔을 치료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하여 기운이 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사기자

또한 더위를 막아주고 식이 고기다리고 있는데 뭘 주는 그대로 가지고 조국에 갔었다. 그 돈이 고향에 가서 이모저모 꼭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돈때문에 영백은 어머니앞에서 평생 일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본사기자

그때 그는 그가 내놓은 돈을 의외인듯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참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문을 여는 것이다.

본사기자

어머니는 그가 내놓은 돈을 의외인듯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참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문을 여는 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말 상식

《거대하다》와 《막대하다》

전례없는 양양과 거대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막대하다』는 땅이나 가지수가 엄청나게 크거나 많음을 표현하는 말로서 주로 들이었거나 바쳐었거나 절어버렸거나 하였을 때 즉 부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례: 막대한 손실, 막대한 투자,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륙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우울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 『사파가 이는 계절이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욕을 돋구며 술기운을 풀어주고 사파를 약한 불에 달여 만든 『육용단』은 오장육부